

문제1. (대응적 비교)

1. 일단 먼저, 발문에 따르면 제시문 (나)의 언어들을 분류해야 발문에 따른 답안작성이 됩니다. 이는 이루어 지지 않고, 가-1과 2를 비교하고 있는데 물론 이도 당연한 작업이지만. 발문에 따른 (나)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문 불이행입니다.
2. 2문단에서는 (나)의 첫 번째 단어 유형들에 대해 가-2를 통해 분석했는데, 가-1로 인한 분석자체 또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서술은 없습니다. 이도 아쉬운 감점 포인트입니다.
3. 마찬가지로 3문단에서는 가-1을 통한 분석만이 이루어지고, 가-2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도 반쪽 짜리 답안 서술입니다.
4. 전체적으로 내용상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, 유용성과, 안정감이라는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한 포인트는 완벽한 대응적 비교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, 2개의 대응점을 더 잡을 수 있는데, 이를 하지 않음은 반쪽 짜리 답안으로 아쉽습니다.

문제2. (표 대응)

1.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. 정말 잘하신 부분은 표 해석이 완벽합니다. 그리고 제시문 (다)의 논점또한 잘 잡아내셨구요. 특히, 표 해석을 할 때 근거를 표의 수치가 바뀐 부분을 제시해 줌으로써 완벽한 근거가 보충이 됩니다.
2. 하지만, 아쉬운 점은 결론입니다. 제시문 (다)에서 사회규범의 변화없는 국가 = 대한민국, 변화 있는 국가 = 미국과 네덜란드 따라서 제시문 (라)의 a와 b국가는 각각 대한민국과 미국 네덜란드로 혹은 진보화 되는 것만 본다면 미국이 진보화 되고 있으므로 제시문 (라)의 a국은 미국 b국은 대한민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는 점이 아쉽고.
3. “A국가는 개화시기가 늦은 개발 도상국과 같은 국가일 것이며 B국가는 이미 개화가 이루어져 사회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.” 이 부분은 논리적 비약입니다. 대한민국과 미국 네덜란드를 개발 도상국, 선진국으로 구분 한 기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논리적 비약인 결론입니다. 물론 가능성이 높다고 한 표현은 완벽히 단정짓지 않아, 이해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 서술은 빠지는 게 더 좋은 답안일 것입니다.